

2025

평신도 월례회 공과

새로운
시대를
여는
평신도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평신도국

저자

이찬석 교수

- 감리교신학대학교 및 동대학원 졸업
- Drew University 신학석사(M.Div) 및 철학박사(Ph.D)
- 남서울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역임
- 현) 협성대학교 웨슬리대학 신학과 교수
- 현) 시흥북지방 매화교회 소속목사
- 현) 한국조직신학회 회장
- 현) <샘>지 발행인 및 편집주간
- 현) 평신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저서 : 『글로벌 시대의 기독교신학』 (신앙과 지성사, 2013)
『감리교는 무엇을 믿는가?』 (도서출판 kmc,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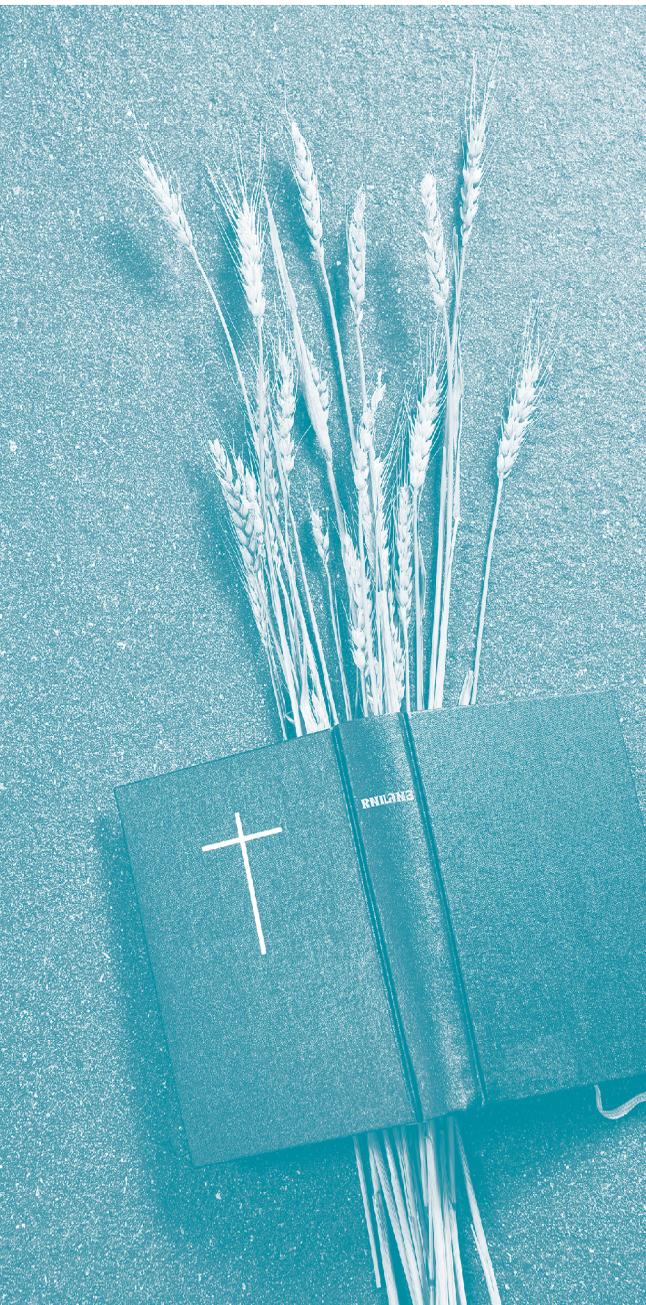
2025

평신도 월례회 공과

새로운
시대를
여는
평신도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평신도국



목 차

머 리 말	기독교대한감리회 김정석 감독회장	04p
격 려 사	사회평신도국 위원장 유병용 감독	05p
발 간 사	사회평신도국 총무 문영배 장로	06p
들어가는 말	집필자 이찬석 교수	07p
01.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제이다!	08p
02.	존 웨슬리와 평신도 사역자	12p
03.	그리스도의 삼중직	16p
04.	예언자로서의 평신도	20p
05.	제사장으로서의 평신도	24p
06.	왕으로서의 평신도	28p
07.	교회란 무엇인가?	32p
08.	하나의 교회	36p
09.	거룩한 교회	40p
10.	보편적 교회	44p
11.	사도적 교회	48p
12.	평신도 전문성의 선교화	52p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인생활수칙	56p

머 리 말

기독교대한감리회 김정석 감독회장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 는 평신도

한국감리교회에서 평신도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 않습니다. 의사를 결정하는 모든 회의에 목회자와 평신도가 같은 수로 참여합니다. 이는 감리교회의 중요한 전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평신도들의 주도적인 사역 참여로 오늘의 감리교회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선교초기에 주체적으로 복음을 수용해 교회 설립의 주역이 되었고, 예배당 건축을 위해 전답이나 혼인예물까지 처분해 헌금하는 헌신을 보였습니다. 교회 부흥운동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에는 삼일운동, 국채보상운동, 계몽운동 등 민족운동에도 선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태풍, 폭우, 산불, 붕괴사고, 서해 기름유출 등 갖은 민족의 수난 현장에서 십자가 신앙으로 동참하여 민족문화와 역사 전통을 지키는 활동에도 적극 동참했습니다.

특별히 제36회 총회에서는 '희망·도약·동행 - 새로운 감리교회, 하나된 감리교회'를 슬로건으로 하여 선교 초창기 대사회 영향력을 회복함으로써 감리교회의 위상을 높이고자 합니다. 새로운 감리교회의 모습을 창출하는 일에 평신도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동참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평신도운동의 전통 유산을 간직한 평신도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서도록 안내하는 '평신도 월례회 공과'가 올해도 발간됐습니다. 향후 2년 동안 공과의 주제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평신도'로서 존 웨슬리의 가르침을 살피면서 감리회의 선교역사에서 활약한 평신도들의 모습을 살펴보고 새로운 역사 창출의 주역으로서 어떻게 활동할 수 있는지를 나눴습니다. 집필의 방향은 '감리회 선교 140주년'을 맞이하여 평신도들이 <그리스도의 삼중직>과 <교회의 네 가지 표지>를 중심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해마다 평신도 교재를 기획하고 편집하는 평신도부 담당자들과 집필을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매일 이 공과를 통해 존 웨슬리가 붙잡았던 행복의 근원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붙잡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는 주역으로 세워지는 평신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격 려 사

사회평신도국 위원장 유병용 감독



영적인 지침서이자 마음의 쉼터

사랑하는 주님의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 귀한 월례회 공과 발간을 축하하며, 함께 기뻐할 수 있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월례회 공과는 단순히 글을 담은 책자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여정을 기록하고, 서로에게 소망과 위로를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이 안에 담긴 한 글자 한 문장은 우리 각자의 삶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이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 월례회 공과를 준비하며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기도가 없었다면 오늘의 이 아름다운 결실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고는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 것이며,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책이 사회 곳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애쓰는 평신도 여러분에게 새로운 힘과 비전을 주기를 소망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이야말로 교회의 살아 있는 증거입니다. 이 월례회 공과가 그런 여러분에게 영적인 지침서이자 마음의 쉼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격려하며 동역해 나아갑시다. 바울은 자신을 과거의 상처나 세상의 환경에 묶인 존재가 아닌, 새로운 피조물로 보았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 붙들린 희망과 도약을 향해 동행하며 나아가는 동역자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수고는 헛되지 않으며, 주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 월례회 공과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빛을 발견하고, 주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향하여 희망, 도약, 동행을 이루고자 합니다. 다가오는 시간에 반드시 이루어지시기를 소망하며 감사와 축복을 담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회평신도국 총무 문영배 장로

새로운 감리교회, 하나된 감리교회



하나님의 은총이 가정과 섬기시는 교회와 일터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5년에는 이 땅의 선교 140주년을 맞이하여 평신도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자는 다짐을 새롭게 하고 실천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월례회 공과>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참된 신앙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제대로 알고 제대로 복음을 전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삶에서 얻은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새롭게 하나 되어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일꾼으로 거듭나기 위해 이번 <월례회 공과>가 작은 도약의 발판 역할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희망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저는 다들 좌절할 때 묵묵히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부흥의 열매를 맺은 교회들이 곳곳에 많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교회들의 공통점은 목사님뿐만 아니라 평신도들이 나서서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에게 먼저 다가가 섬기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삶에 모범을 보이고 밝은 얼굴로 몸소 봉사하며 섬기는 모습에서 주님의 향기가 절로 전파되고, 이에 희망의 열매도 영글지 않겠습니까.

또한 개구리가 멀리 뛰기 위해 웅크렸다 힘껏 도약하듯, 이제는 우리 감리교회가 도약을 할 때입니다. 감리교회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서 있습니다. **“새로운 감리교회 하나된 감리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존 웨슬리는 실천하는 감리교인이 되기를 권면하였습니다. 복음의 길이 울퉁불퉁하고 거친 길일지라도 충분히 웅크렸으니 이제, 힘껏, 주님 뜻을 따라 뛰어올라 봅시다. 평신도 여러분은 그럴만한 믿음의 에너지가 있을 줄 압니다.

평신도의 힘은 뭉치는 데서 나옵니다. 혼자서는 힘들지라도 여럿이 함께 하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언제나 동행해주시는 주님이 계시니 얼마나 든든합니까. 평신도들이 섬길 곳이 아주 많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시킬 세상은 넓습니다. **“우리 평신도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미래를 향한 도약을 위해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함께 동행하는 이들이 옆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회평신도국은 시대의 흐름을 읽고 평신도들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며 정책을 세우고 함께 실행하고자 합니다. 이번 <월례회 공과>를 함께 나누며 우리 감리교회 평신도들이 좀더 단단해지고 좀더 신앙의 깊이가 깊어져서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월례회 공과> 집필을 맡아주신 이찬석 교수님과 발간되기까지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집필자 이찬석 교수

2025년 월례회 공과에 관하여



한국교회에서 평신도의 중요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위기를 겪고 있는 이 시대의 한국교회에서 그 위기를 돌파하기 위하여 목회자들이 감당해야 할 몫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평신도들도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하고, 위기가 내포하고 있는 틈을 발견하면서 맡겨진 ‘몫’을 감당한다면 한국교회는 더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평신도들은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며,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서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직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복음은 영적 지혜이고, 삶의 현장(직업)에서 축적된 전문적 지식은 세상적 지혜로 생각하는 이분법적 사유는 루터(Martin Luther)의 종교개혁으로 무너졌습니다. 직업적 지식/지혜 속에 현존하는 하나님의 뜻과 사명은 한국교회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소중한 보물들입니다.

본 공과는 평신도의 정체성을 새롭게 성찰할 수 있는 측면과 그 새로운 정체성을 개인적으로 또한 사회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길로 구성하여 보았습니다. 평신도들의 새로운 정체성을 위하여 1과에서는 루터의 ‘만인 사제직’을, 2과에서는 존 웨슬리가 펼친 ‘평신도 설교’를 살펴보았습니다.

3~6과에서는 새로운 정체성을 개인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삼중직’과 접목하여 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언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그리스도 삼중직은 목회자의 직무와 연결하였으나 본 공과에서는 평신도들도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참여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7~11과에서는 새로운 정체성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실현하기 위한 길로서 ‘교회의 네 가지 표지’와 접목하여 보았습니다.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조는 교회가 지니는 속성(표지)을 ‘하나의 교회’, ‘거룩한 교회’, ‘보편적 교회’, ‘사도적 교회’로 고백합니다. 이 네 가지 속성을 현대 신학자 몰트만(Jürgen Moltmann)의 해석을 근거로 평이하게 풀어 보았습니다.

마지막 12과에서는 평신도들이 자신의 전문적 지식(지혜)이 품고 있는 신앙적 지혜를 선교화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뱀같이 지혜롭기를 당부하셨습니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마10:16) 2025년은 을사년(乙巳年)으로서 ‘푸른 뱀’의 해입니다. 우리 동양의 전통에서도 뱀은 지혜의 상징입니다. 뱀이 허물을 벗으면서 새로운 생명체로 신생(新生)하듯이, 2025년에 한국 감리교회 평신도들의 지혜가 한국 감리교회가 새로운 생명체로 거듭나게 하는데 크나큰 몫을 감당하게 되기를 깊게 기도합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새로운 시대를 여는 한국 감리교회의 평신도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1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제이다!

- 루터의 만인 사제직 -

조용한 기도	다같이
찬 송	219장 (주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2:12-13
요 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함께 나누는 말씀

가톨릭교회(Catholic Church)를 개혁하여 새로운 그리스도교, 프로테스탄트(Protestant)를 시작한 마틴 루터(Martin Luther)는 ‘만인 사제직’(priesthood of all believers)을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신실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포로가 되어 낯선 광야에 머무르게 되었다. 그러나 그 무리 중에는 성직자가 한 명도 없었고 모두가 평신도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예배의 설교자와 세례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게 되

었다. 그 사람들이 무리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하여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고, 예배를 드리고, 사죄(赦罪)하고, 설교하는 임무를 맡겼다. 이러한 일을 정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세례라는 성례전을 베풀 수 있는 자격은 성직자에게만 주어진 일인데 평신도가 세례를 베풀어도 정당하다고 할 수 있을까?

루터 당시 가톨릭은 평신도와 성직자의 영역을 분명하게 구분하였습니다. 루터는 <독일 크리스천 귀족에게 보내는 글>에서 위의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과 같이 자신의 결론을 제시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참으로 모든 주교와 교황들이 성별한 사제와 동일하게 될 것이다. 반드시 필요한 때에 어떤 사람이나 세례를 베풀고 사죄할 수 있다는 이유가 이것이다.”¹⁾

이러한 이야기와 결론은 사제와 평신도의 경계선이 명료하던 가톨릭의 상황에서 도전적이고 획기적이었습니다.

1517년에 루터는 가톨릭 성직자로서 개혁을 위하여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대자보로 붙였고, 이것이 발전하여 프로테스탄트(Protestant)가 등장하는 종교개혁을 가져왔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에서 중요한 3대 슬로건은 ‘오직 성경으로’(sola scriptura), ‘오직 은혜로’(sola Gratia), ‘오직 믿음으로’(sola fide)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에서 이 세 가지 슬로건과 함께 획기적이면서 모든 교회에 도전을 주는 개념은 ‘만인 사제직’입니다.

루터 당시의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을 ‘영적 계급’과 ‘세속적 계급’이라는 두 부류로 나누었습니다. 영적 계급에는 교황, 주교, 사제, 수도사가 속하고, 세속적 계급에는 영주, 직공, 농부 등 일반적이고 보통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속하였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이러한 구분이 ‘조작’이고 ‘거짓’이고 ‘위선’이라고 가혹하게 비판합니다. 루터는 성직자만 영적 계급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1) 마틴 루터/ 지원용 옮김, 『말틴 루터의 종교개혁 3대 논문』 (서울: 컨콜디아사, 2006), 31.

모든 그리스도인이 영적 계급에 속하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사제라는 ‘만인 사제직’을 주장하였습니다.

루터는 영적 계급에 속하는 사제가 성직자로서 성별을 받는 의식으로 ‘세례’를 강조합니다. 교황이나 주교가 주는 사제로서의 성별은 결코 사제가 되게 하지 못하고, 그보다 더 높은 성별인 ‘세례’가 영적 인간으로서의 사제를 만든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세례와 복음과 신앙만이 우리를 ‘영적으로’ 되게 하고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게”²⁾ 한다고 보면서 “세례의 물에서 나오는 사람은 누구나 이미 성별 된 사제이고 주교이고 교황이라고”³⁾ 주장합니다.

루터가 ‘만인 사제직’을 주장하면서 세례와 더불어 중요하게 제시하는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몸에서 눈, 코, 귀, 발 등과 같이 지체는 여럿이지만 몸은 하나임을 말하면서 다양한 지체는 자신에게 주어진 고유한 일들을 수행함을 강조합니다. 루터는 이 본문에 근거하여 사제가 하는 일과 평신도가 하는 일이 몸의 지체와 같이 각각의 고유성을 수행하는 것임을 명료하게 지적합니다. 루터의 ‘만인 사제직’에 근거하면, 평신도는 세례를 통하여 성별된 영적 계급이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루터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사제나 주교나 교황과 같이 ‘영적’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그들의 일과 직무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전의 집행을 맡고 있는 것 외에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아무 차이가 없고 우위에 있지도 않은 것처럼, 세속적인 관현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악한 자를 벌하고 선한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칼과 채찍을 가진다. (롬13:4) 구두 수선공, 대장장이, 농부는 각기 자기들의 일과 직무를 맡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다 성별 받은

사제와 주교와 같다.⁴⁾

감리교회는 존 웨슬리에 의하여 시작되었지만, 루터에 의하여 확산한 종교 개혁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리교회의 모든 평신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자신이 세속적 계급이 아니라 영적 계급에 속함을 고백 하면서 영적 지혜와 육적 지혜를 통전하는 삶을 올곧게 살아가야 합니다.

? 성찰을 위한 질문

1. 루터에 따르면, 영적 계급에 속하는 사제가 사제로서 성별을 받는 의식은 무엇인가요?
2. 루터가 주장하는 ‘만인 사제직’에서 사제와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3. 평신도가 영적 계급에 속하는 이들로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2) 마틴 루터/ 지원용 옮김, 『말틴 루터의 종교개혁 3대 논문』 (서울: 컨콜디아사, 2006), 30.

3) 위의 책, 32.

4) 마틴 루터/ 지원용 옮김, 『말틴 루터의 종교개혁 3대 논문』 (서울: 컨콜디아사, 2006), 34. 강조는 필자의 것임.

2월 존 웨슬리와 평신도 사역자⁵⁾

조용한 기도	다같이
찬 송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4:1-2
요 절	하나님 앞과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함께 나누는 말씀

감리교회가 평신도를 사역자로 세우고, 성직자와 함께 목회에서 동역하는 것은 존 웨슬리(John Wesley)로부터 시작합니다. 존 웨슬리는 1744년 6월에 개최된 첫 번째 감리교 연회에서 ‘목회자의 직무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을 보살피는 것’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마틴 루터가 ‘만인 사제직’을 주장하였다면, 존 웨슬리는 이 ‘영혼 보살핌’의 직무를 성직자에게만**

5) 본과의 내용은 2024년 8월 19일에 열린 <제1회 평신도 정책연구포럼>에서 오광석 교수가 발표한 “존 웨슬리와 평신도 사역자”라는 글에서 발췌/수정한 내용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위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한시키지 않았습니다. 존 웨슬리는 평신도들도 목회자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평신도들을 설교자로 세웠고, 이들을 ‘협동 설교자’(Assistant), ‘설교 도우미’(Helper), ‘특별한 메신저’(Extra ordinary messengers)라고 불렀습니다.

존 웨슬리는 원래 영국국교회의 성직자였으며, 영국국교회의 모든 교리를 지키고 예전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는 영국국교회의 장정(discipline)에 동의하고 잘 준수되기를 소망하였고, 매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영국국교회의 규칙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⁶⁾ 그런데 영국국교회는 ‘평신도의 설교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영국국교회 39개 신조의 제23항은 “누구든지 합법적으로 부름을 받아 회중 안에서 공적인 설교나 성례를 집전하도록 파송 받기 전에 이러한 직책을 수행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규정하면서 평신도의 설교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존 웨슬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나는 감독에게 안수받지 않은 몇몇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설교하도록 부름을 받았다고 믿는다 ... 거기에 예외의 경우들이 있다고 생각한다.”

존 웨슬리는 영국국교회의 규칙과는 다르게 평신도 설교자들을 세웠습니다. 그가 주장하고 실제로 시행한 ‘평신도 설교’는 당시 영국국교회 안에서는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영국국교회의 관점에서 보면, 존 웨슬리는 프로테스탄트의 ‘만인 사제직’을 지향하는 사람으로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존 웨슬리가 성직 안수받지 않은 평신도들에게 설교자의 직임을 부여한 것은 그 당시 영국국교회 성직자들이 존 웨슬리를 공격하는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존 웨슬리가 보기에는 많은 영혼이 영원한 파멸로 치닫고 있는데 안수받고 임명된 영국

6) 웨슬리는 그의 설교, “선지자와 제사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영국국교회의 모든 교리를 지킵니다. 나는 영국국교회의 예전을 사랑합니다. 나는 영국국교회의 장정(discipline)에 동의하며, 모든 것이 잘 준수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가 판단하기에 매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거나,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영국국교회의 어떠한 규칙에도 고의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존 웨슬리/ 감리교신학대학교·한국 웨슬리연구원 옮김, 『존 웨슬리의 설교』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22), 655.

국교회 성직자들이 그들을 돌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신도들 가운데 설교자의 은사와 소명을 가진 이들이 많은 영혼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존 웨슬리는 평신도 설교를 요청하였고, 자신은 그 필요성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존 웨슬리는 평신도 설교자들을 ‘목사’(minister)라고 부르지는 않았지만, 경건 생활과 직무의 수준을 아주 엄격하게 요구하였습니다. 평신도 설교자들은 매일 새벽부터 오후 5시에서 6시까지 묵상과 개인 기도서를 사용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성경을 읽거나 실천신학 서적을 읽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저녁으로 설교하고, 매주 신도회와 반회(band)로 모이며, 매주 그 모임의 인도자들과 만나 지도해야 했습니다. 존 웨슬리는 평신도 설교자들이 순회하며 설교하도록 하였고, 한 장소에서 2년 이상 머무는 것을 악한 관행으로 보았습니다. 평신도 설교자들은 각자 자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으나 성직자와 거의 동일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평신도 설교자는 감리교회 목회의 독특성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감리교회의 목회 이해가 제도와 직제 중심의 성직 이해에서 벗어나 기능 중심의 실용적 목회적 이해였음을 보여줍니다. 평신도 설교 사역은 점점 커가는 초기 감리교 공동체 안에서 효과적으로 기능하였습니다. 한국 감리교회도 노병선이나 최병헌 처럼 ‘본처 전도인’(local preacher)이라고 불리는 초기 평신도 설교자들이 한국 감리교회의 정착과 성장에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평신도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책망과 권면하는 일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존 웨슬리는 초기 감리교회에서부터 평신도 설교자를 세워** 많

은 영혼을 보살폈습니다. 존 웨슬리가 평신도 설교자를 세우고, 제도와 직제 중심의 성직 이해를 넘어서 기능 중심의 실용적 목회를 지향한 것은 초기 감리교회의 소중한 전통입니다. 한국의 감리교회는 일찍이 평신도를 설교자로 세웠고, 현재에도 평신도를 설교자로 세우기 때문에 존 웨슬리가 영국국교회의 규칙에 벗어나면서까지 실시하였던 점에 새로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영국국교회의 상황을 회상하면서 존 웨슬리가 새롭게 펼쳐간 길을 깊게 생각해 볼 의미가 있습니다. 존 웨슬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죄 말고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100명의 설교자를 내게 주십시오. 나는 그들이 성직자이든 평신도이든 지푸라기 하나만큼도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한 사람들만이 지옥문을 흔들고 지상에 하늘나라를 세울 것입니다.

? 성찰을 위한 질문

1. 평신도 설교에 관한 영국국교회의 조항과 존 웨슬리의 입장을 비교하여 보세요.
2. 존 웨슬리가 평신도 설교자를 세운 이유는 무엇이고,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3. 평신도의 설교에 대한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정리하고 나누어 봅시다.

3월 그리스도의 삼중직

조용한 기도	다같이
찬 송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성경 말씀	요한1서 2:27
요 절	너희는 주께 받은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함께 나누는 말씀

존 웨슬리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설교하면서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만 전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하신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무이지만, 주님은 선지자와 왕의 직무도 수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는 그의 표준설교 31번 <믿음을 통해 세워지는 율법2>(The Law Established through Faith II)에서 우리는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예언자로서의 그리스도’와 ‘왕으로서의 그리스도’도 설교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리스도를 설교한다는 것은 … 우리를 위해 증보하시는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설교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설교가 이런 사제적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것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것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오사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예언자로서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설교해야 합니다. 또한 … 본디 피조된 대로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며, 만물을 당신 자신에게 복종케 하실 때까지, 모든 죄를 완전히 추방하고 영원한 의가 임할 때까지, 모든 믿는 자의 마음속에서 다스릴 영원한 왕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도 설교해야 합니다.⁷⁾

예언자로서의 그리스도,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 왕으로서의 그리스도는 기독교 전통에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자로서의 직무, 제사장으로서의 직무, 왕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셨음을 의미합니다.**

구약성서의 예언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면서 그들의 불신앙과 무지를 깨우쳐 회개하게 하고, 믿음의 길을 견도록 해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인류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예언자의 직무를 수행하십니다. 구약성서에서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였을 때 희생제물(속죄물)을 드려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중보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희생제물(속죄물)로 드려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해시키고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증보하는 증보자로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십니다. 구약성서에서 왕은

7) 아드폰테스 웨슬리, 『그 길: 웨슬리 표준설교 읽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9), 370. 강조는 필자의 것임.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죄(사탄)를 추방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고, 믿는 자들의 마음을 다스림으로써 왕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는 개념은 16세기 종교개혁자들에 의하여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이 발생하기 오래전에 가이사라의 유세비우스(Eusebius)는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고 이미 주장하였지만, ‘그리스도 삼중직’의 체계적인 발전은 종교개혁, 특별히 존 칼뱅(John Calvin)에 의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마틴 루터는 그의 글, <그리스도인의 자유>(1520)에서 그리스도의 이중직(왕의 직무와 예언자의 직무)을 이야기합니다. 루터의 영향으로 칼뱅도 초기에는 그리스도의 이중직을 주장하였지만, 후에 마르틴 부처(Martin Bucer)의 영향을 받아서 그의 책, 『기독교강요』에서 ‘그리스도 삼중직’을 심도 있게 발전시켰습니다. 존 웨슬리도 그리스도의 이중직을 넘어서 예언자, 제사장, 왕의 직무, 세 가지 직무를 수행하신다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수용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설교해야만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1930년에 선포된 <교리적 선언>의 2조에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하여 고백합니다. “...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모범이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스승과 모범은 예언자로서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으로 읽을 수 있으므로 <교리적 선언>은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고백합니다. 1997년에 선포된 <감리회 신앙고백> 2조는 “...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승천 하심으로 대속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는 고백은 예언자로서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으로, 구세주라는 고백은 왕으로서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가장 중요한 신앙고백이라 할 수 있는 <교리적 선언>과 <감**

리회 신앙고백>은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수행하신 세 가지 직무에 참여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구약성서에서 예언자, 제사장, 왕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로서 각각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에 예언자, 제사장,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참여해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의 각 지체로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있음으로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참여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아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 요한1서 2장 27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인은 주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 기름 부음이 그리스도인의 안에 거하고 있으며, 그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 안에서 거하면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삶 속에서 이어가야 합니다.

? 성찰을 위한 질문

1. 구약에서 예언자, 왕, 제사장의 직무와 예수님께서 수행하시는 예언자, 왕, 제사장의 직무의 차이점에 대하여 생각하고 나누어 봅시다.
2. 나의 지나온 삶에서 주님께서 수행하시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참여한 일/사건/깨달음을 찾아보고 함께 나누어 봅시다.
3. 이 시대의 교회와 평신도가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지에 관하여 지혜를 나누어 봅시다.

4월 예언자로서의 평신도

조용한 기도	다같이
찬 송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성경 말씀	로마서 14:17
요 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함께 나누는 말씀

‘그리스도의 삼중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자, 제사장, 왕의 직무를 수행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존 웨슬리는 우리가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예언자로서의 그리스도와 왕으로서의 그리스도도 전파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예언자에 관한 깊이 못한 생각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아서 알려주는 사람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예언자에 대한 가장 근원적 이해는 하나님의 말씀 또는 하나님의 뜻을 사람(인류)에게 전달하는 메신저(messenger)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먼저 받았습니다. 예레미야 1장 2절에 보면, “... 여호와와 말씀이 예레미야에

게 임하였고.” 아모스도 유사하게 시작합니다. “...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암 1:2) 예언자는 사람으로서 알 수 없는 앞날의 일들을 미리 알려주는 사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신저입니다.

메신저로서 예언자들이 말씀을 받아 전달하는 과정에서 미래에 대한 일들을 말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점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예언자들은 자신들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사람들의 삶을 냉혹하게 비판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 사사시대를 넘어 왕정 시대로 넘어가면서 절대적인 권력을 지닌 왕이 불의한 일을 행할 때 예언자들은 하나님과 백성들의 편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합니다.

아모스는 다음과 같이 외칩니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네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할지어다.”(암 5:22-24)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안에 정의와 공의가 자연스럽게 흐르고 넘치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선포하였다면, 예수님은 그 정의와 공의를 ‘하나님의 나라’로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셨고 그 나라를 현실적으로 가시화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한마디로 압축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첫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막 1:15)이고, 많은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깨우쳐 주셨고, 치유와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현실화하셨습니다. 또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셨

고, 부활/승천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취하셨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자신들이 선포하는 말씀을 위로부터 받아서 전달하였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삶과 가르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정의를 하나님의 나라로 보여주시고 완성하시면서 예언자의 직무를 완성하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와 지체로서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일깨워주고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기에 모든 그리스도인이 수행해야만 하는 예언자의 직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기본적인 정의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나라로서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진 살롬의 나라입니다. 존 웨슬리는 그의 표준설교 16번, <우리 주님의 산상수훈에 대하여>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화 그리고 기쁨’입니다. ‘의’는 …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새롭게 지음받은 마음입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화는 … 그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사실에 대한 확증입니다. … 이 내적인 천국에는 성령 안에서의 ‘기쁨’도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마지막 날 하늘의 면류관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라고 보증해주시는데 이런 성령의 보증이 우리 안에 기쁨을 일으킵니다. 이런 의, 평화, 기쁨이 하늘나라입니다.”⁸⁾

존 웨슬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와 평화와 기쁨의 나라로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음으로써 의와 평화와 기쁨의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믿음은 내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갈 5:6)으로 확장되어,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밖에도 실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

스도 몸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예언자적 직무에 참여한다는 것은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다른 사람과 사회와 우주 안에서 실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언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평화와 기쁨을 선포하고 가르치면서 인류 사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기에 예언자로서의 평신도 직무가 있습니다.

? 성찰을 위한 질문

1. 구약시대 예언자의 직무와 예수 그리스도가 수행하신 예언자의 직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생각해보고, 서로 나누어 봅시다.
2. 존 웨슬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하였는지를 정리하여 보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예언자적 직무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봅시다.
3.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깊게 생각해보고 내 밖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봅시다.

8) 아드폰테스 웨슬리, 『그 길: 웨슬리 표준설교 읽기』(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9), 187.

5월 제사장으로서는 평신도

조용한 기도	다같이
찬 송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성경 말씀	로마서 12:1-2
요 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함께 나누는 말씀

‘그리스도의 삼중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자, 제사장, 왕의 직무를 수행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프로테스탄트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고백하면서 예수님께서 펼치시는 사역을 이해하고 있으며, 존 웨슬리는 우리가 제사장으로서는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예언자로서의 그리스도와 왕으로서의 그리스도도 전파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셨고, 지금도 수행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골고다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인류를 위한 속죄물로 드려 제

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롬 1:6)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예수님께서 수행하신 제사장의 직무에 참여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예수님은 성소의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은 새로운 길이요, 우리는 마음에 뿌림을 받아 몸이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므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서, 그 은총에 힘입어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평신도가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수행하신 제사장의 직무를 그대로 행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주님이 걸어가신 대제사장의 길에 평신도가 참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권면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인류를 위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림으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였듯이, 우리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화해’입니다.

구약에서 제사장은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재자로서 화해를 가져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지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해를 가져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롬 5:15) 거룩한 산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류는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중보자 주님께서 수행하신 제사장의 직무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고,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님처럼 이 세상에 화해를 가져오고 생명을 낳는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의 삶을 살아감으로 이 세상에 화해와 생명을 낳고 넓혀가야 합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마 26:39) 주님께서서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거룩한 산 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히 13:12-13) 주님께서서는 영문 밖에서 치욕과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넘어서 직장 and 사회 안에 있는 아픔들을 짊어짐으로 가정과 직장을 성화(聖化)시키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평화의 왕이 되셨듯이 우리도 이 세상에 평화를 만드는 평화지기(peacemaker)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이 세상에 화해와 생명을 가져왔듯이, 우리도 이 세상에 화해와 생명을 낳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셨듯이, 우리도 주님의 은총 안에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적 제물로 드려 주님의 은총 안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 성찰을 위한 질문

1.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행하신 제사장의 직무는 무엇인가요?
2.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수행하신 제사장의 직무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3.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6월 왕으로서의 평신도

조용한 기도	다같이
찬 송	139장 (오 영원한 내 주 예수)
성경 말씀	로마서 5:17
요 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함께 나누는 말씀

‘그리스도의 삼중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자, 제사장, 왕의 직무를 수행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존 웨슬리는 우리가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예언자로서의 그리스도’와 ‘왕으로서의 그리스도’도 전파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의 직무를 수행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왕의 직무는 다스리고 통치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여 그리스도인들을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하여 주시는 왕이시고, 전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우주의 왕이십니다.

현대신학자들 중에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에서 예언자의 직무와 제사장의 직무는 예수님의 부활 이전과 이후 모두에 적용할 수 있지만, 왕의 직무는 부활/승천하신 이후에만 적합하다고 주장합니다. 부활/승천 이전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으므로 예언자의 직무를 수행하셨다고 할 수 있고,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인류의 죄를 짊어지셨으므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셨다고 할 수 있으나, 부활/승천 이전의 예수님(역사적 예수)은 우주를 통치하셨다고 할 수 없고, 부활/승천 이후에 우주의 왕으로서 만물을 통치하기 때문에 ‘왕으로서의 그리스도’는 ‘승천 이후’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왕이 참다운 왕인지를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절대적인 권력을 이기적으로 휘두르는 왕은 진정한 왕이라기보다는 폭군이요 독재자입니다. **주어진 권력을 지배의 도구가 아니라 섬김의 도구로 삼아서 백성(타자)을 섬기는 왕이 참다운 왕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막 10:45)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며 지배하는 왕의 삶을 보여 주지 않고, 반대로 자신의 목숨을 인류의 대속물로 주시면서 섬기는 왕으로 사셨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예수님은 참다운 왕이고, 왕중의 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왕으로서의 직무에 참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최악의 권세를 정복하고 죄로부터의 해방을 우리에게 은총으로 선물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혈에 의지하여 죄를 정복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왕으로서의 직무에 참여해야 합니다. 존 웨슬리는 구원의 완성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주장하였으며, 그리스도인의 완전이 도달하면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물론 인간의 무지, 실수, 한계에 의한 죄로부터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존 웨슬리는 표준설교 35번 <그리스도인의 완전>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점에서 완전하다는 것입니까? ...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이라도 첫째, 죄를 짓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완전합니다 ...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은 가장 낮은 단계에 속한 자라도 죄에 거하거나 그 가운데 살지 않으며, (롬 6:1-2)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았으며, (롬 6:11) 율법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어서 이제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롬 6:14,18) 완전한 자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이라도 율법을 외적으로 범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⁹⁾

그리스도인들이 왕의 직무를 감당한다는 것은 우선 주님의 은총에 힘입어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정복하는 삶이고, 존 웨슬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도달하여 완전 성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수행하신 왕의 직무에 참여한다는 것은 '섬김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 (막 1:15) 예수님의 맨 처음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이었으며, 많은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기적을 행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는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왕 노릇 하였으나, 이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을 합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왕으로서의 직무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지배'가 아니라 '섬김'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섬기는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셨듯이, 우리도 타자를 섬기는 삶을 살

아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참다운 왕의 직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깊게 생각하여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 성찰을 위한 질문

1. 현대신학자들 중에는 '왕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주님의 부활/승천 이후에만 적합하다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에 대하여 비판하여 보시오.
2.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수행하신 왕으로서의 직무에 참여하여 감당한다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라 할 수 있습니까?
3.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수행하신 왕으로서의 직무에 참여하여 감당한다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라 할 수 있습니까?

9) 아드폰테스 웨슬리, 『그 길: 웨슬리 표준설교 읽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9), 422-3.

7월

교회란 무엇인가? ¹⁰⁾

- 교회의 정의, 사명, 네 가지 표지 -

조용한 기도	다같이
찬 송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2:27
요 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함께 나누는 말씀

교회에 대한 가장 본질적인 정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지만 ‘건물로서의 교회’는 본질적인 정의라기보다는 외형적인 정의입니다. 교회의 본질적 정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께서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는 베드로의 고백을 ‘교회의 반석’으로 삼으셨습니다. “...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

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마태복음 16:15-18) 가톨릭은 이 본문에서 베드로를 교회의 반석으로 해석하고 교회의 정통성을 예수-베드로-교황으로 구성합니다. 그러나 프로테스탄트는 ‘교회의 반석’을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고백’으로 해석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고백을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성립 요건으로 생각합니다. 존 웨슬리도 교회를 ‘참 믿는 이들의 공회’로 규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최우선으로 강조합니다.

성경에는 교회에 관한 많은 은유(metaphor)가 등장하는데,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은유를 선택하여 고백합니다. 신약성경에 등장하는 교회의 은유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갈 3:29)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고전 6:15) ‘그리스도의 성만찬적인 몸으로서의 교회’,(고전 10:16-17)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교회’,(고후 11:2) ‘하나님의 건물로서의 교회’,(고전 3:9-15)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교회’(고후 3:2-3) 등이 있습니다. 이 많은 은유에서 <감리회 신앙고백>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고백합니다. <감리회 신앙고백> 6조는 교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우리는 예배와 친교, 교육과 봉사, 전도와 선교를 위해 하나가 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교통하면서 영적 생명을 늘 공급받고,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뜻을 전하고 행해야만 합니다. <감리회 신앙고백>은 교회의 정의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고백하고, 교회의 사명을 예배와 친교, 교육과 봉사, 전도와 선교로 고백합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이고, 교회는 예배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와 더불어 교회의 중요한 사명은 ‘친교’입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

10) 본과의 내용은 다음의 책을 참조하여 발췌/보완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찬석, 『감리교는 무엇을 믿는가?: 감리회 신앙고백 해설』(서울: KMC, 2016), 125-145.

는 친교의 근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귄과 친교'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상호내재/상호소통(perichoresis)을 통하여 펼치시는 삼위일체적 사귄과 친교가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회는 예배와 친교와 더불어 교육과 봉사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 공부와 교리 공부를 끊임없이 베풀어서 교인들이 변화하는 시대에 적합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교회는 봉사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막 2:17)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봉사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 주신 섬김의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중요한 사명은 주님의 지상명령인 전도와 선교입니다. 전도는 비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면, 선교는 다양한 사회적 활동(봉사)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은 '하나님의 나라'였으므로 교회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며, 또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정의합니다. 교회는 예배와 친교, 교육과 봉사,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속성을 지니고 있을까요? 그리스도교 전통은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조'를 통하여 하나의 교회, 거룩한 교회, 보편적 교회, 사도적 교회를 교회의 속성(표지)으로 고백합니다. 이 신조는 교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수많은 교회가 존재하고 있지만 교회는 하나이고, 교회의 구성원들은 죄인들이지만 교회는 거룩하고, 다양한 교회들이 존재하나 교회는 보편적이며, 교회는 사도적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교는 이 네 가지 표지를 교회의 속성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4과

에 걸쳐서 교회의 네 가지 속성을 세계적인 신학자 몰트만의 해석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하나로서의 교회, 거룩한 교회, 보편적 교회, 사도적 교회를 고백하면서 이 시대 속에서 가시화 시켜 나가야 합니다.

? 성찰을 위한 질문

1. 교회의 본질적인 정의는 무엇이고,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감리회 신앙고백>은 교회를 어떻게 정의합니까?
2. <감리회 신앙고백>에 따르면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3.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조가 고백하는 <교회의 네 가지 표지>는 무엇입니까?

8월 하나의 교회

조용한 기도	다같이
찬 송	475장 (인류는 하나 되게)
성경 말씀	에베소서 4:4-6
요 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함께 나누는 말씀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교회의 첫 번째 표지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는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감리교회, 성결교회, 장로교회 등 교파별로 다른 교회들이 있고, 한 교파 안에는 공간(지역)적으로 한국 감리교회(Korean Methodist Church), 미국 감리교회(United Methodist Church) 등 다양한 교회들이 존재합니다. 한국 감리교회 안에는 일반적인 교회가 있으면서도 카페교회, 장애인교회 등 목회의 형태에 따라 여러 교회가 존재합니다.

수많은 교회가 현존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눈으로 지구상의 모든 교회를 바라본다면 모든 교회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가 섬기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는 성경은 하나이고, 베풀고 있는 세례도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조를 통하여 첫 번째로 고백하는 교회의 표지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교회의 일치성, 통일성에 관한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님도, 하나님도, 믿음도, 세례도 하나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입니다. 존 웨슬리는 <교회에 대하여>라는 설교의 본문으로 에베소서 4장을 선택하고, 이 설교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보편적인 교회 또는 우주적인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불러낸 자들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의 영’으로 일치되어 ‘한 몸’ 되게 하시고, ‘한 믿음, 한 소망, 한 세례’를 소유하고, ‘한 하나님 즉 모두의 아버지이며 모든 것의 위에 계시며 모든 것을 사용하시고, 모든 것의 안에 계신 분’을 모시도록 하셨습니다.¹¹⁾

교회에 관한 은유로서 가장 많이 고백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교전 12:27)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골 1:18)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으뜸으로서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우리 몸의 지체가 여럿이지만 머리는 하나이듯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몸의 지체로서 다양하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

11) 한국웨슬리학회 편역, 『웨슬리 설교전집 6』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2), 155.

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입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교회가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교회는 하나이고 하나가 되어 일치를 이루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일치’는 ‘획일화’를 의미하거나 ‘다양한 교회의 통합’을 의미하지 않고, 다양성 안에서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현대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은 ‘하나의 교회’를 ‘자유 속에서의 일치’로 설명합니다. 어떤 한 장소에서 모이는 회중은 다른 장소에서나 다른 시간에 모이는 회중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일치는 획일화가 아니므로 일치를 위하여 강압되거나 통제되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고유한 은사는 물론 약함이나 부족한 모습도 그대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몰트만은 ‘자유 속에서의 일치’를 통하여 회중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회중의 일치는 <자유 속에서의 일치>이다. … 또한 회중의 일치는 일치 속에서의 자유와 다양성이다. … 모이는 교회는 다양성 안에서의 일치의 근원으로 또한 일치 안에서의 자유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¹²⁾ 다양성이 살아나는 일치이어야만 진정한 일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몰트만은 ‘자유 속에서의 일치’를 넘어 ‘일치 속에서의 자유’도 주장합니다.

이 지구상에 수많은 교회가 존재하였고, 존재하고 있으나 교회는 근원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의 교회이고 하나의 교회로서 일치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감리교회, 성결교회, 장로교회 등 여러 교파가 존재하나 서로 정죄하거나 갈등하지 않고 일치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 몸의 각 지체가 협력하여 일치와 조화를 이루어내듯이 다양한 교파는 각각의 고유성을 존중받으며 ‘하나의 교회’로서 일치와 조화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존 웨슬리가 ‘일치의 정신’(Catholic Spirit)이라는 설교에서 주장하는 것을 이 시대의 감리교도들은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속한 국교회의 예배형식이 역사적이고 사도적인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제 믿음을 다른 사람이 따라야 할 규칙으로 제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랑으로 연합해야 할 상대방에게 저의 교파, 그것의 치리 제도, 성직 제도 기도 형태, 성찬 방식, 세례 자격과 방식 같은 것에 대해 질문하지 않으렵니다. 세례나 성찬을 인정하는지의 여부조차도 말입니다. 지금 저의 질문은 이 한 가지입니다. ‘제 마음이 당신 마음을 향하여 진실한 것같이 당신의 마음도 저와 같습니까?’¹³⁾

? 성찰을 위한 질문

1. ‘하나의 교회’를 위한 성경적 근거는 무엇인지 생각하고 나누어 봅시다.
2. 다양성이 살아나는 참다운 일치를 위한 신앙의 삶을 보여주는 성경적 또는 역사적 인물들을 생각해 보고 나누어 봅시다.
3. 몰트만이 말하는 ‘자유 속에서의 일치’, ‘일치 속에서의 자유’를 위하여 한국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나누어 봅시다.

12) 위르겐 몰트만/ 박봉량 옮김, 『성령의 능력안에 있는 교회』(서울: 한국신학연구소 출판부, 1980), 365.

13) 아드폰테스 웨슬리 엮음, 『그 길: 존 웨슬리 표준설교 읽기』(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9), 406.

9. 거룩한 교회

조용한 기도	다같이
찬 송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8:9
요 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나누는 말씀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만나이다.” 교회의 두 번째 표지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교회는 거룩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므로 거룩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죄인(罪人)들의 공동체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회를 거룩하다고 보면서 ‘거룩한 교회’로 고백하는 것은 모순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의 교회’가 되어야 하듯이,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전통적으로 ‘교회의 거룩성’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교회 그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는 거룩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즉, 교회의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교

회가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듯이, 교회도 ‘죄인들의 공동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한 교회’가 된다고 이해하였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us)에 따르면,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현존으로 거룩합니다. 즉, 교회는 죄인을 의롭다고 만드시는 그리스도와 성령의 일하심으로 거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칼뱅도 아우구스티누스와 유사하게, 교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선택된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의 내적 갱신을 통해 거룩하게 되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교회가 거룩한 것은 교회의 구성원들이 실제로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성령의 은혜로 거룩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존 웨슬리(John Wesley)는 교회의 거룩성에 대하여 다른 주장을 합니다. 그는 “교회에 관하여”(On the Church)라는 설교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지식이 많은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알려줍니다. ‘교회는 거룩하다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인 그리스도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 아닙니다. 가장 짧고 가장 단순하며 또한 유일하게 진실된 이유는 교회는 거룩하다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¹⁴⁾ 즉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이 정도는 다를 수 있지만 그들은 거룩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부른 그분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존 웨슬리는 교회의 구성원들이 실제로 거룩하다고 주장합니다. 교회의 거룩성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아우구스티누스와 존 웨슬리의 차이점은 교회가 실제로 거룩한가? 그러하지 않은가? 이라면, 공통점은 교회 자체의 능력으로 거룩하지 않고 교회를 부르신 분의 거룩성에 근거하여 거룩하다는 점입니다.

참다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20세기 신학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바르트(Karl Barth)는 참다운 신성은 낮아짐에서 드러난다고 주장함

14) 존 웨슬리/한국웨슬리학회 편역, 『웨슬리 설교전집 6』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2), 161-2.

니다. 그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계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하여 하나님은 참다운 신성을 드러내셨습니다. 성육신은 높은 곳에 계시던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점은 참다운 하나님의 모습은 낮아짐에서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몰트만은 교회의 표지 중의 하나인 ‘거룩한 교회’를 해설하면서 교회는 가난에 참여함으로 거룩하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교회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비천함과 무력함과 가난과 고난에 참여하는 곳에서 거룩하게 된다. 교회의 영광은 가난의 표적을 통하여 드러난다. … 교회는 가난과 고난과 억압의 표적을 통하여 이 〈사악한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된다고 말할 수 있다.”¹⁵⁾

바르트가 참다운 신성은 ‘낮아짐’을 통하여 드러난다고 주장하듯이, 몰트만은 교회의 거룩성은 교회가 세상의 가난에 참여함으로 드러난다고 주장합니다. 몰트만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의 부유함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었으며, 제자들은 부에 관한 복음을 가난한 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가난해졌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데 바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에 투자할 때 가난하게 된다고 몰트만은 주장합니다.

그러나 몰트만은 교회가 가난한 자를 위한 구제금에 집중한다면 교회는 아직 가난에 의한 성화(聖化)를 이루지 못했다고 지적합니다. 즉, 거룩성을 위한 교회의 가난함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금만을 존중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몰트만은 이렇게 언급합니다. “만일 교회가 〈가난한 자들의 교회〉가 된다면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그들 자신과 그들의 소망을 교회 안에서 발견한다면 교회는 영적인 그리고 실제적인 의미에서 〈가난〉하게 될 것이다. 가난은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난한 자들의 친교로 이끌지 않으면 덕이 아니다.”¹⁶⁾

교회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금을 넘어서 가난한 자들이 교회 안에서 친교를 나누며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친교와 소망의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몰트만은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부유하신 분이신데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고, 예수님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음을 강조합니다. 교회의 두 번째 표지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교회의 거룩성은 바르트가 주장한 것처럼 고귀하고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도 가장 낮은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교회에서 진정한 친교를 나누며 소망을 발견할 때 교회의 거룩성은 이루어집니다. 존 웨슬리의 주장처럼 교회를 부르신 분이 거룩하심으로 교회는 실제로 거룩하고 거룩해야만 합니다.

? 성찰을 위한 질문

1. 몰트만은 교회의 거룩성이 가난한 자들의 친교와 소망을 통하여 이루어져 감을 주장합니다. 이 주장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나누어 봅시다.
2. 아우구스티누스와 칼뱅과 다르게 ‘교회는 실제로 거룩하다’라는 존 웨슬리의 주장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나누어 봅시다.
3. 한국의 감리교회가 거룩해지기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서로의 생각을 나누어 봅시다.

15) 위르겐 몰트만/ 박봉량 옮김, 『성령의 능력안에 있는 교회』(서울: 한국신학연구소 출판부, 1980), 379.
16) 위의 책, 380.

10월 보편적 교회

조용한 기도	다같이
찬 송	211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성경 말씀	누가복음 1:51-53
요 절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흠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주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함께 나누는 말씀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교회의 표지 중에서 세 번째는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보편’(普遍)의 사전적 의미는 모든 것에 두루 미치거나 공통되는 속성이나 사항을 뜻하며, 라틴어로는 전체를 지향하고 모든 것을 포괄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교회는 보편성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서는 인류의 모든 생명을 위한 십자가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전 피조물에 현존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보편적이

시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는 보편적인 나라이므로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가 되어야 하고, 이 세상에 보편성을 현실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몰트만에 따르면 교회는 그 자체로 보편적이지 않고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편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교회는 그 자체에 의해서 보편적이고 일반적이고 전체에 연결되지 않는다. 다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보편적이다”¹⁷⁾라고 말합니다.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Ignatius)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시든지 그곳에는 보편적인 교회가 있다고 말합니다. 결국, 교회가 지니는 보편성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이므로 교회의 보편성을 위하여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은 유대인이라는 특수한 민족을 넘어 이방인으로, 부자를 넘어서 가난한 자들로까지 지평이 확장되어 모든 사람에게 보편타당한 보편성을 지닌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특정한 민족이나 계층에게 기울어지지 않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존중받는 평등하고 보편적인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오늘의 세상을 바라본다면, 평등하기보다는 울퉁불퉁합니다. 경제적으로는 강대국과 부자에게로 기울어져 있고, 힘에 있어서는 국민보다는 권력을 잡은 특권층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현대 국가는 부자에게 기울어져 있는 경제적인 측면을 평등하게 만들기 위하여 사회복지 정책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의 강한 자들이 누리는 혜택을 약한 자들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약한 자들의 편에서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 갑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사회복지 정책은 부유한 사람으로부터 많은 세금을 받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베푸는 정책을

17) 위르겐 몰트만/ 박봉량 옮김, 『성령의 능력안에 있는 교회』(서울: 한국신학연구소 출판부, 1980), 370.

지향합니다. 사회복지 정책은 보편적인 세상을 위하여 가난한 자들을 편드는 당파적인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도 보편적인 나라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보편성을 이루기 위하여 ‘당파성’을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이 사회의 중심부에 있는 종교적 지배자들의 입장을 편들기보다는 그들에 의하여 버림받고 천대받던 죄인, 세리, 가난한 자들과 같이 주변부에 있던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들을 편드는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보편성을 이루기 위하여 당파성을 선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은 재물이 많은 청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부자 청년의 삶이 사회의 중심부에 속하여 있으면서 기우뚱한 세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난한 자들을 편드십니다. 이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보편적인 세상을 위하여 당파적 실천을 선택하십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몰트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체가 분열 상태에 처해있을 때 교회가 우선적으로 잃은 자와 거부된 자 그리고 억압당하는 자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한에 있어서 교회는 전체에 연결되어 있고 또한 보편적이다.”¹⁸⁾ 교회의 보편성은 잃은 자와 거부된 자와 억압당하는 자들의 이익을 추구할 때 이루어진다고 몰트만은 강조합니다. 교회는 당파성을 실천함으로 보편성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임신한 마리아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흠어 버리시고, 권세 있는 자를 위에서 내리치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비천한 자는 높이시고,

주리는 자는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위하여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의 편을 드십니다. 감리교회의 모든 평신도는 비천한 자와 주리는 자를 편드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해야 하고, 예수님께서 일깨워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하여 당파적 실천을 수행하여 보편성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 성찰을 위한 질문

1. 보편성을 이루기 위한 당파적 실천은 무슨 의미인지 생각을 나누어 봅시다.
2. 당파적 실천을 통하여 보편성을 이룬 사례들을 찾아보고 나누어 봅시다.
3.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교회의 보편성을 완성하기 위하여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봅시다.

18) 위르겐 몰트만/ 박봉량 옮김, 『성령의 능력안에 있는 교회』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출판부, 1980), 375.

11월

사도적 교회

조용한 기도

다같이

찬 송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성경 말씀

마태복음 16:15-19

요 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함께 나누는 말씀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만나이다.” 교회의 네 번째 표지는 ‘사도적 교회’입니다. 인류의 삶에 있어서 정통성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의 국가는 물론 작은 공동체일지라도 그 공동체의 권위를 받쳐주는 요소 중의 하나가 정통성입니다. 정통성을 지니는 사람 또는 그

룹이 그 공동체의 권위를 갖게 됩니다.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가장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정통성입니다. 이단이란? 예수를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신들의 교주를 구원자로 고백함으로써 교회의 정통성에서 벗어난 단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계시, 교회의 근거, 교회의 머리이므로 교회의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합니다.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조는 ‘사도적 교회’라는 표지로 사도성을 교회의 정통성으로 고백합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에 대한 증인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인 선교의 사명을 주도적으로 감당한 이들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통성을 가장 잘 담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승천 이후에 그분의 사역은 사도들에 의하여 계승되었으므로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조는 ‘사도성’으로 교회의 정통성과 연속성을 고백합니다.

가톨릭에서는 마태복음 16:18-19에 근거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베드로에게로 계승되었다고 보면서 그 이후로는 교황/주교에게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마 16:18-19) 가톨릭은 교회의 반석을 베드로로 읽어가면서 천국 열쇠가 베드로에게 주어졌음을 강조합니다.

가톨릭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교회의 반석’을 제자 베드로로 읽어가지만, 프로테스탄트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읽어갑니다. 그러므로 프로테스탄트에

서 교회의 반석은 제자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존 웨슬리도 로마 가톨릭의 주교들이 사도들로부터의 정통성을 중단 없이 계승하였음을 부인하면서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웨슬리는 참된 교회의 사도적 계승은 사도적 증언과 사도적 정신의 연속에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몰트만은 사도적 계승을 ‘복음의 계승’과 ‘선교적 사명’으로 제시합니다. 그에 따르면, 누가는 ‘12 사도단’에 대하여 이야기하지만, **(눅 6:13, 행 1:21)** 사도 바울은 열두 사도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도’들에 대해서 말하고, 사도직을 형성하는 것은 지상에서의 예수의 제자직만이 아니라 부활한 그리스도의 현현과 임무라고 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몰트만은 ‘사도성’의 근거를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두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사도적 계승〉은 참으로 〈복음의 계승〉이며, 부활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끊임없이 그리고 순수하게 선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종교 개혁자들은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 사도성의 기준이 될 것을 요구했다. 그들은 성서를 진정한 〈사도 apostolos〉로서 다시 말해서 끊임없는 사도적 선포와 널리 퍼져나가는 메시아적 교회에 대한 사도적 증언으로서 이해했다.¹⁹⁾

더 나아가서 몰트만에 따르면, 교회는 〈사도시대〉를 이상화할 필요는 없으며, 사도적 동일성을 맹목적으로 반복을 통해서 주장할 필요도 없으며, 중요한 것은 사도적 동일성이 아니라 **동등성**입니다.²⁰⁾ 교회의 네 번째 표지인 ‘사도적 교회’가 지니는 의미는 열두 사도가 감당하였던 주님의 사역을 동일하게 반복하는 반복성이 아니라 사도들이 선포한 부활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동등하게

선포하는 동등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존 웨슬리는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찬식이 정히 행해지는 것”²¹⁾이라고 정의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시대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하고, 성찬식을 올바르게 행함으로 사도적 반복성이 아니라 ‘사도적 동일성’을 실천하여 ‘사도적 교회’로서의 모습을 끊임없이 이어 나가야 합니다.

? 성찰을 위한 질문

1. ‘교회의 사도성’에 관한 프로테스탄트(개신교)와 가톨릭(천주교)의 차이를 정리하여 봅시다.
2. ‘사도적 교회’의 참다운 모습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를 생각하여 봅시다.
3. 교회의 사도성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성만찬이 올바르게 행하여지는 교회입니다. 이 시대의 한국 교회를 ‘사도성’의 관점에서 평가하여 생각하여 봅시다.

19) 위르겐 몰트만/ 박봉량 옮김, 『성령의 능력안에 있는 교회』(서울: 한국신학연구소 출판부, 1980), 383.

20) 위의 책.

21) 존 웨슬리/한국웨슬리학회 편역, 『웨슬리 설교전집 6』(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2), 157.

12월 평신도 전문성의 선교화²²⁾

조용한 기도	다같이
찬 송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성 경 말 씀	고린도전서 9:22-23
요 절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함께 나누는 말씀

한국 사회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듯이, 한국교회도 초고령 공동체가 되어가면서 연령층의 구조가 역삼각형의 모습을 보입니다. 젊은이들은 교회에 색다른 매력을 느끼지 못하면서 떠나가고 있고, 초등학교 시절에 교회 생활에 열정적이었던 학생 중에서 모습이 보이지 않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교회학교는 전체적으로 크나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

도 한국의 젊은이들은 사회적 공공성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실현하려는 관심은 많아집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4』에 있는 아래의 글은 한국교회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3040세대는 기존의 교회 내부 활동보다는 교회 밖 사회에 대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전통적인 교회 활동보다는 사회적 실천에 관심이 많다. 사회적, 공적 가치를 구현하고자 노력하는 교회를 더 선호한다.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사회봉사 활동의 장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는 사회적 공공성과 거리가 없으며, 사회적 공공성을 높이고 확장/심화시키는 것이었는데, 한국교회의 젊은 층은 교회와 사회적 공공성 사이의 거리감을 짙게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평신도들이 예배에 참여하고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수동적 신앙생활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능동적 신앙생활의 길을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신도는 전문성이 있는 일들을 직업으로 삼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왕 같은 제사장'^(벧전 2:9)입니다. 어느 특정한 직업적인 일과 복음을 접목하는 영성에 있어서 탁월한 사람은 수도사라기보다 그 직업의 전문가이면서 그리스도인인 평신도입니다. 평신도들이 자신의 직업의 현장에서 깨닫고 경험한 전문적 지혜와 신앙적 지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소중한 보물입니다. 존 웨슬리가 평신도 설교자를 세워 초기 감리교회의 성장과 성숙을 견인하였다면, 존 웨슬리의 후예들인 이 시대의 감리교회는 평신도들의 온몸과 삶에 녹아있는 신앙적 지혜와 전문적 지혜(지식)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선교화(宣敎化)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속한 지역의 공동체와 지역민들에게 전문적 지식/지혜와 더불어 신

22) 본 내용은 2024년 8월 19일에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평신도국이 주최한 <제1회 평신도 정책연구포럼>에서 필자가 "감리교도의 정체성과 트렌드"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내용의 일부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제1회 평신도 정책연구포럼>의 자료집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양적 지혜(영적 지혜)를 베풀어 준다면 그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평신도들의 수동적인 신앙생활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신앙생활로 패러다임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지역을 섬기는 행사를 열고 있으나 그 행사 대부분은 주로 고아원, 양로원, 다문화 가정에 집중하면서 물질적으로 지원하려는 자선적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웨슬리의 어머니 수잔나는 창세기를 가지고 철자법, 독서법을 익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민족교육과 신앙교육을 통전하였듯이, 수잔나는 일반적 공부와 성경 공부를 통전하였습니다. 즉, 세상적 지혜와 신앙적 지혜를 통전하였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 부모님들은 자녀의 일반적 공부는 학교의 선생님에게 위임하고, 신앙적 교육은 교회학교의 선생님에게 위임합니다. 필자는 강의실에서 신학도들에게 학생을 대상으로 설교할 때 예화를 먼 곳에서 찾지 말고 설교를 듣는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교과서에서 예화를 가져오도록 하라고 주문합니다. 교회학교 전도사님과 교사들의 책상에는 성경책과 더불어 학생들의 교과서가 나란히 있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이것과 저것을 분리하는 'either/or'의 사유 방식이 아니라 이것과 저것을 아우르는 'both/and'의 사유 방식이 더 적합하며, 성(聖)과 속(俗)을 나누는 이분법적 삶이 아니라 성과 속을 통전하는 통전적 사유와 삶을 요구합니다. 또한 육적 지혜(직업적 전문성)와 영적 지혜(신앙적 지혜)를 등급화하지 않고 아우르는 통전성이 요구되며, 성직자와 평신도를 수직적 구조로 계급화하는 제도/직제 중심을 넘어서 기능 중심의 실용적 목회를 지향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평신도들은 삶의 현장에서 신앙적 감수성으로 자신의 직업을 수행하는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평신도들이 보석같이 다듬은 직업적 전문성은 신앙적 지혜와 더불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 평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값진 씨앗들입니다. 이 씨앗들이 지역 사회에 심어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교회는 고민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고백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자신이 약한 자와 같이 되고,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이 시대의 교회는 지역에 따라 약한 자가 되기도 하고 여러 모양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교회를 위하여 평신도들의 영성은 이제 어두운 지하 동굴에서 밖으로 나와 이 세상에 빛을 비추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세상을 살림의 세계로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 성찰을 위한 질문

1. 이 시대의 젊은 층이 원하는 교회는 어떤 모습의 교회인지 생각해봅시다.
2. 직업상의 전문적 지혜와 신앙적 지혜가 접목되는 자신의 경험을 서로 나누어 봅시다.
3. 평신도로서 직업상 전문적 지혜와 신앙적 지혜를 탁월하게 접목한 평신도에 관한 이야기를 찾아보고 나누어 봅시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인생활수칙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롬 12:2

1. 교인생활 수칙

우리는 주님의 몸 된 교회에서 지체의 하나로서 서로 섬기고 협력하며, 직분에 따라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충성한다.

- ① 교우들을 대할 때 누구에게나 형제와 자매처럼 친절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존경과 예우를 한다.
- ② 교회 내에서 교우 간의 호칭은 직분(집사, 권사, 장로)에 따라 부르고, 직분에 벗어 나지 않도록 예의를 갖추어 쓰도록 한다.
- ③ 교회의 모든 물품은 성도들의 헌금으로 구입한 것으로 종이 한 장이라도 아껴 쓰고, 교회의 각종 시설을 깨끗이 사용하고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 ④ 우선적으로 어려운 교우들을 돕고, 환난 당한 교우들을 최선을 다하여 돌보아 주되, 보증을 서는 일이나 금전거래는 피한다.
- ⑤ 예배나 각종 모임의 시간약속을 잘 지켜서 신실성을 보여주고, 공동체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 ⑥ 다른 교우들의 약점을 들추거나 험담하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자, 부정적인 말 한 마디가 한 영혼을 죽이고, 본인의 마음을 부패하게 만든다.
- ⑦ 교회의 모든 일은 나누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힘쓰고, 주관하는 사역보다 뒤에서 협력하고 보좌하는 습관을 갖는다.
- ⑧ 성도의 사생활이나 허물은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 속회에서나 선교회에서 상담하고 일어난 일을 다른 교우들에게 말하지 않는다. 불확실한 말을 전하는 것이 사단이 틈타는 통로이다.
- ⑨ 교회의 일은 교회 밖에서 거론하지 말고, 교회의 부정적인 일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말하지 않는다.
- ⑩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나의 이익을 구하거나 자리를 탐하지 말자. 상급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2. 가정생활 수칙

우리는 가정을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공동체로 여겨 가정예배에 힘쓰고 자녀들을 경건하게 양육하며 검소하고 청빈한 생활을 통해 성숙한 그리스도 가정이 되도록 힘쓴다.

- ① 평등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가정의 대소사는 부부가 함께 상의하고, 가족회의를 열어 결정한다.
- ② 하늘양식으로 주간 마다(혹은 매일 매일) 가정예배를 드려 경건한 가정이 되게 하고, 마침기도는 부모님이 함으로 부모님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숙지시킨다.
- ③ 가족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가훈을 만들어 가족의 정체성을 확립한다.
- ④ 가정의 규칙을 만들어 지키게 함으로 공익을 우선하고, 규칙을 잘 지키는 시민정신을 갖게 한다.(귀가시간, TV시청시간, 식사시간 등...)
- ⑤ 매주 한 번씩 모든 가족이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함으로 가족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품위 있는 식탁 예절을 배우게 한다.
- ⑥ 모범가정 상을 제정하여 해마다 시상함으로 이웃을 위하여 봉사하고 섬기는 생활을 드높인다.
- ⑦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 음악, 연극 등을 개발하여 기독교문화를 창달하는데 힘쓴다.
- ⑧ 자녀들의 의식주 및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하는 데는 최선을 다하여 투자하되, 유산은 물려 주지 않는다.
- ⑨ 관혼상제를 간소화하여 허례허식을 지양하고, 부지런히 일하고 청빈한 생활습관을 갖도록 한다.
- ⑩ 술, 담배, 도박, 마약 등 사회악을 추방하는데 앞장서고 생활 실천 계몽 활동에 적극 참여하게 한다.

3. 일반생활 수칙

우리는 정의롭고 진실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소외된 이웃을 돕고, 그늘진 곳에 사랑의 빛을 비추며, 부패를 막는 소금처럼 사회의 부정하고 변질된 모습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

- ① 동회, 반사회, 부녀회, 노인회 등 지역사회를 위한 일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 ② 아파트 및 공동주택에 거주할 경우 이웃에게 소음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심하고, 이웃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작은 소리로 대화한다.
- ③ 환경공해를 일으키는 물건은 되도록 적게 쓰도록 한다.
- ④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을 엄격히 구분하여 행동하고, 공공건물이나 물품 및 공동화장실을 깨끗이 사용하는 시민정신을 함양한다.
- ⑤ 차량을 운전할 때 양보운전을 습관화하여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한다.
- ⑥ 이웃에게 바르고 정직한 삶을 보여 줌으로 기독교인의 품위를 고양한다.
- ⑦ 직장의 동료들에게 항상 솔선수범하고, 허드레한 일을 내가 도맡아 하며, 책임은 내가 지고, 칭찬은 동료에게 돌리는 리더의 자질을 키운다.
- ⑧ 마을회관, 파출소, 동사무소, 노인회관 등 지역사회의 공익기관에 관심을 갖고, 방문하여 격려하고 봉사함으로 애향심을 기른다.
- ⑨ 시간을 잘 지키고 약속을 엄수함으로 신용을 얻는 그리스도인이 된다.
- ⑩ 어른을 잘 공경하고, 어린이, 부녀자 등 약한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장애인을 보호하고 도와준다.

4. 창조질서 보전을 위한 수칙

우리는 자연과 생명을 사랑하고 자원을 절약하며, 무분별한 자연 개발을 방지하여, 환경보호에 앞장선다.

- ① 창조질서 보전운동은 자원절약을 생활화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 아껴쓰고, 덜 쓰고, 바로 쓰고, 다시 쓰고, 나눠 쓰자.
- ② 재활용은 자원절약의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필요한 중고품을 서로 교환하여 이용한다.
- ③ 샴푸, 린스, 세제, 스프레이 등 공해물질을 덜 쓰거나 쓰지 않는다.
- ④ 오염물질이 하천에 배출되지 않도록 폐수는 반드시 정화시설을 통하여 배출하도록 한다.
- ⑤ 비닐을 적게 쓰고 특별히 농산물 포장에 유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 ⑥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를 분리수거하여 분량을 줄이고, 내가 남긴 쓰레기는 내가 처리하고, 버려진 휴지를 줍는 습관을 기른다.
- ⑦ 청결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담배꽂이나 껌, 침 등을 함부로 뱉지 않는다.
- ⑧ 공원과 공공장소의 시설물을 아껴서 사용하자. 문화생활의 척도는 공공화장실 사용에 있다. 다음에 이용하는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깨끗하게 사용한다.
- ⑨ 탐욕을 버리고 일용할 양식으로 자족한다.
- ⑩ 교회 및 NGO 시민단체에서 벌이는 환경보전을 위한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여 활동한다.

5. 정직운동 실천을 위한 수칙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정직하게 행하여 사회에서 존경받고 칭찬들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앞장선다.

- ① 날마다 정직한 마음을 갖도록 기도한다.
- ② 정직선언서를 만들어 서명하여 마음에 새기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장소에 부착하여 날마다 보도록 하게 한다.
- ③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한다.
- ④ 약속을 꼭 지킨다.
- ⑤ 정직이 최선의 삶의 모범임을 자녀들에게 가르친다.
- ⑥ 공공질서를 잘 지킨다.
- ⑦ 부정한 뇌물을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다.
- ⑧ 검약생활에 본보기가 된다.
- ⑨ 국가에 세금을 정직하게 내고, 교회 통계표를 정직하게 보고한다.
- ⑩ 지방이나 연회의 각 선교회 단체에서 주관하는 크고 작은 행사 때마다 정직 캠페인을 벌여 감리교인 전체가 정직한 사람이 되게 한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힘쓰고,
화해와 평화가 넘치는 인류사회를 위해 봉사한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평신도국

03186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감리회관 16층
Tel. 02-399-4346~9 Fax. 02-399-4350

발행일

2024년 12월 16일

발행처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평신도국
03186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149 감리회관 16층
T. 02)399-4346~9 F. 02)399-4350
kmc.or.kr

발행인

김정석

편집인

문영배

교정/교열

조은희·김주선

디자인

동영디자인에

비매품



평신도들은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며,
‘성령이 거하시는 집’으로서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직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찬석 교수의 “들어가는 글” 중에서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평신도국

03186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149 감리회관 16층
T. 02)399-4346~9 F. 02)399-4350 kmc.or.kr